

프랑코 마추켈리

고공 회전, 당신보다도 격렬한



비에카 데코라치오네

Bieca Decorazione

2010

PVC, 공기

100x100x15cm

Photo©Trevor Lloyd

전시개요

전 시 명 : 《프랑코 마추켈리: 고공 회전, 당신보다도 격렬한》

전시기간 : 2019년 12월 11일(수) – 2020년 1월 12일(일)

전시장소 : 학고재 본관

문 의 : 02-720-1524~6

출 품 작 : 33 점

(공기 주입식 부조 21점, 공기 주입식 조각 6점, 콜라주 5점, 참고 영상 1점)

담 당

박미란 miran@hakgojae.com

1. 전시 개요

학고재는 2019년 12월 11일(수)부터 2020년 1월 12일(일)까지 프랑코 마추켈리(Franco Mazzucchelli, b. 1939, 이탈리아 밀라노) 개인전 《프랑코 마추켈리: 고공 회전, 당신보다도 격렬한》을 연다. 프랑코 마추켈리는 합성 소재를 조각의 재료로 활용한 선구자다. 1960년대 초, 공업용 PVC¹를 예술 창작 과정에 끌어들이는 획기적 발상으로 주목 받았다. 개념미술이 발전한 시대적 배경에 부합하는 시도였다. 이번 전시는 프랑코 마추켈리가 아시아에서 여는 첫 개인전이다. 작가의 작품세계 전반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전시는 학고재 본관에서 열린다.

¹ 폴리염화비닐. 염화비닐을 주성분으로 하는 플라스틱으로, 유연성과 탄력성을 지니고 있다.

2. 전시 주제

이탈리아 포스트 모더니즘 거장, 프랑코 마추켈리의 아시아 첫 개인전

프랑코 마추켈리는 이탈리아 포스트 모던 조각의 선구자다. 미술 평론가이자 사학자인 자클린 체레솔리²는 프랑코 마추켈리가 “뒤샹의 개념과 밀접한 특성을 지닌” 작가이자 “전시 환경에 대한 통념을 전복한 혁신적 작가”라고 했다. 지난 해 이탈리아 밀라노의 20세기 박물관이 프랑코 마추켈리의 대규모 회고전을 열었다. 20세기 박물관은 20세기 대표적 작가들을 조명하는 전시 기관이다. 프랑코 마추켈리의 작품 인생 전반을 망라한 회고전으로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도래한 1960년대 초, 예술가들은 기존 제도와 전시 공간을 벗어나고자 노력했다. 문명 시대의 작가들은 인공 이미지와 소재를 작업에 도입하기 시작했다. 프랑코 마추켈리는 1964년도에 합성 소재를 사용한 조각 작품을 처음으로 선보였다. PVC로 만든 공기 주입식 조각이다. 공업 재료를 예술에 접목한 획기적 시도였다. 프랑코 마추켈리가 연 일련의 관객 참여형 전시 《A. to A.》가 시대 배경을 효과적으로 투영한다. ‘A. to A’는 ‘유기하는 예술(Art to Abandon)’의 약어다. 대규모 공기 주입식 조각을 공공장소에 방치하여 대중과의 상호작용을 유도한 전시다. 당시 사진과 작품 일부로 구성된 콜라주 연작과 영상 기록을 전시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번 전시는 프랑코 마추켈리의 아시아 첫 개인전이다. 한국에서 작품을 소개하는 것은 지난 1999년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연 《대구-밀라노 미술교류전》(1999) 이후 20년 만이다. 프랑코 마추켈리의 작품세계 전반을 폭넓게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대표적 연작 <비에카 데코라치오네>와 콜라주 연작, 이번 전시를 위해 새롭게 제작한 대형 PVC 공기 주입식 조각들을 학교재 본관 한옥에서 다채롭게 조명한다.

순수한 장식 – 장식적 조형에서 이끌어낸 예술성

전시에서 선보이는 <비에카 데코라치오네>는 프랑코 마추켈리가 1971년부터 꾸준히 제작해온 연작이다. 이탈리아어로 ‘순수한 장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프랑코 마추켈리는 스스로의 작업을 ‘사회화된 예술’로 바라보았다. 향유성을 고려하자면 장식성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판단했다.

² 자클린 체레솔리(Jacqueline Ceresoli, 1965, 이탈리아). 대표 저서는 『새로운 도시의 풍경: 시티스트라티즈모와 도시 미술 *La nuova scena urbana: Cittàstrattismo e urban-art*』(2005). 이탈리아 밀라노 브레라 순수미술학교, 밀라노 폴리테크닉 대학, 코모 알도 갈리 예술 아카데미 교수직을 역임했다. 2006년, 프랑코 마추켈리 개인전을 기획하고 글을 썼다. 인용문은 「프랑코 마추켈리의 공간 개혁(Le Alterazioni spaziali di Franco Mazzucchelli)」(2006).

작품 이미지 사용 시 아래 저작권 표시 부탁 드립니다.
All Images: Courtesy the artist and ChertLüdde, Berlin

프랑코 마추켈리는 벽에 걸린 모든 것이 '순수한 장식'이라고 여겼다. 공기 주입식 조각을 축소하고 평면화해 벽에 걸 수 있는 형태로 제작하기 시작했다. 미술의 장식적 기능에서 역설적 순수함을 발견하고자 한 시도다.

〈비에카 데코라치오네〉를 처음 선보인 1971년도에 작가는 작품으로 벽 전체를 빈틈 없이 메웠다. 장식성을 내세우는 개별 화면이 공간에 대한 통념을 뒤집는 환경 미술로 탈바꿈했다. 〈비에카 데코라치오네〉는 예술의 상업화에 반대하는 선언이다. 일견 상업적으로 보일 수 있는 장식적 조형으로부터 예술성을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다. 형태와 색감, 부피 등 시각 요소들이 무한한 조합의 가능성을 내비친다. 프랑코 마추켈리는 작품 제작을 위해 측정, 절단, 조립을 위한 기술을 익혀야 했다. 작품 창작에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노동을 행하며 오히려 즐거움을 발견한다. 수십 년간 연마한 정교한 기술을 바탕으로, 80세의 나이에도 작품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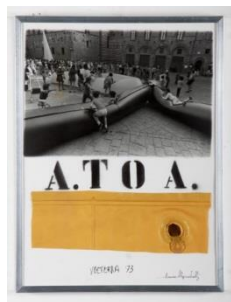
3. 작품 소개

대표작품



비에카 데코라치오네
2010
PVC, 공기
100x100x15cm
Photo©Trevor Lloyd

〈비에카 데코라치오네〉는 PVC 비닐을 재료로 제작한 작품이다. 전면의 공기 주입구를 통해 작가의 숨을 불어 넣어 완성한다. 매끄러운 근대식 건축이나 쿠션을 떠올리게 하는 조형이다. 공산품의 재료와 형태를 참조하지만, 제각기 고유한 정체성을 띤다. 〈비에카 데코라치오네〉의 시초는 1960년대의 〈A. to A.〉 연작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시적 설치 작업인 〈A. to A.〉와 대조적으로, 〈비에카 데코라치오네〉는 개별 작품으로서의 존재감을 강하게 드러낸다. PVC 비닐을 동일하게 활용하되 실내 공간에서 장식적 기능을 갖는 오브제로 탈바꿈했다. 스스로의 역사적 작품을 재해석한 기념비적 연작이다.



A. to A.

이번 전시에서 프랑코 마추켈리의 1970년대 관객 참여형 전시 《A. to A.》를 소재로 한 동명의 콜라주 연작을 만날 수 있다. 'A. to A.'는 '유기하는 예술(Art to Abandon)'의 줄임말이다. 프랑코 마추켈리가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선보인 관객 참여형 전시의 제목이자 작품명이다. 거대한 PVC 공기 주입식 조각을 도시 공간에 방치해두고 대중의 반응과 상호작용을

작품 이미지 사용 시 아래 저작권 표시 부탁 드립니다.
All Images: Courtesy the artist and ChertLüdde, Berlin

(이탈리아 볼테라 프리오리 광장, 1973)

유도한 작업이다.

1970년대 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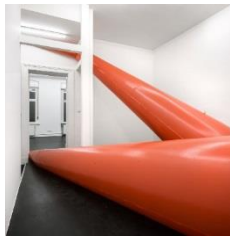
인화지에 펠트 펜, 페인트,

실제 PVC 공기 주입식 작품 일부

40x30x3cm

Photo©Trevor Lloyd

과거 전경 사진을 화면 상단에 배치하고, 실제 PVC 조각 작품의 일부를 화면 하단에 콜라주했다. 다섯 작품 중 세 점은 1973년도에 이탈리아 볼테라 프리오리 광장에서 선보인 전시의 기록을 소재로 구성한 콜라주다. 다른 두 점은 1971년 이탈리아 토리노 예술고등학교에서 열린 전시에 대한 기록이다. 콜라주 연작의 맞은편 벽에서 프랑코 마추켈리의 1970년대 관객 참여형 전시를 기록한 영상 자료를 살펴볼 수 있다.

**레드 콘**

2013

PVC, 공기

600x90cm

Photo©Trevor Lloyd

본관 안쪽 방에 들어서면 다양한 공기 주입식 조각들이 시선을 압도한다. 원뿔, 구, 나선형 등 기하학적 형태를 띤 공기 주입식 조각이다. 거대한 조각들은 본래 야외 전시를 위해 제작한 작품이다. 조각들이 갤러리 내부에 침입하여 재치 있는 방식으로 공간을 장악한다. 장소에 대한 통념을 뒤집는 시도다.

유연성과 탄력성을 지닌 플라스틱 비닐로 만든 조각은 공기를 넣기 전에는 얇고 가볍다. 휴대와 보관이 용이한 효율적 형태다. 조각에 공기를 주입하면 비로소 크게 부풀어 오른다. 매우 작은 질량으로 거대한 부피를 구현해낸다. 재료의 특성을 적극 활용한 영민함이 돋보인다.

4. 작가 소개

프랑코 마추켈리는 1939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태어났다. 밀라노 브레라 순수미술학교³에서 회화와 조소를 전공했다. 졸업 이후인 1966년부터 밀라노 브레라 순수미술학교 조각기술과목의 교수로 재직했다. 1964년에 처음으로 공기 주입식 조각 작품을 제작했다. 1970년대 초부터 도시 및 옥외 공간에서 환경미술 설치를 선보였다. 《볼테라 '73》(1973), 《제37회 베니스 비엔날레》(1976), 등 여러 역사적인 전시에 참여했다. MA*GA 미술관(갈라라테, 이탈리아), 20세기 박물관(밀라노, 이탈리아), 밀라노 디오체산 미술관(밀라노, 이탈리아)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쿤스트할레 빈(빈), MA*GA

³ Brera Academy of Fine Arts, Milan, Italy

작품 이미지 사용 시 아래 저작권 표시 부탁 드립니다.
All Images: Courtesy the artist and ChertLüdde, Berlin

미술관(갈라라테, 이탈리아), 아트사이언스 뮤지엄(싱가포르) 등 이탈리아 및 해외 다수의 지역에서 열린 단체전에 참여했다. 밀라노 피에라 재단(밀라노, 이탈리아) 등에서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5. 전시 서문

*서문에서 4단어 이상 발췌 시, 글쓴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갤러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조안 리 | 체르트루데

《프랑코 마추켈리: 고공 회전, 당신보다도 격렬한》(2019)은 프랑코 마추켈리(b. 1939, 이탈리아 밀라노)의 아시아 첫 개인전이다. <비에카 데코라치오네> 연작과 혼합매체 콜라주 연작, 영상, 지지체 없이 세울 수 있는 PVC 공기 주입식 조각을 선보인다.

프랑코 마추켈리는 1964년도에 처음으로 합성 자재에 대한 실험을 시작하며 공기 주입식 조각 작품을 만들었다. 당시 가정 용품의 부품이나 산업의 주재료로 사용하던 합성 자재, 특히 공기 주입식 PVC를 조각의 비전형적 재료로 바라보고 탐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마추켈리의 이러한 관심은 1960년대라는 개념미술의 시대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예술 창작의 범위가 사회 및 공동체 영역으로 나아가기 시작하고, 예술의 상품화에 대한 반발이 형성된 시기다. 마추켈리는 <A. to A.> 연작을 개발했다. '유기하는 예술(Art to Abandon)'의 약어다. 커다란 PVC 공기 주입식 조각을 도시 공간에 방치하여 대중의 반응과 상호작용을 유도한 작업이다. 마추켈리는 《제37회 베니스 비엔날레》(1976), 이탈리아 밀라노 알파 로메오 팩토리 관객 참여형 전시(1971), 이탈리아 바레세 관객 참여형 전시 《어반도노》(1969), 이탈리아 밀라노 갤러리아 산 페델레 관객 참여형 전시 《A to A, 어반도노》(1967) 등 다수의 주요 전시에 참여하고, 관객 참여형 전시를 열었다.

전시의 도입부에서는 <비에카 데코라치오네> 연작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작품명은 작가가 창안한 용어로 '순수한 장식'이라는 뜻이다. 21세기에 의미를 잃어버린 현대미술의 장식적 기능에 대한 반어적 표현이다. 고급스러운 쿠션이나 매끄러운 근대식 건축을 연상시키는 PVC 공기 주입식 조각의 시초는 <A. to A.>다. 도시 공간에 놓여 행인과 상호작용하며, 매일의 관습과 일상으로 짜인 사회 구조를 방해하는 공기 주입식 조각 연작이다. 한시적 설치 작업인 <A. to A.>와 대조적으로, <비에카 데코라치오네>는 오브제로서의 존재감을 강하게 드러낸다. <비에카 데코라치오네>는 예술의 상업화에 반대하는 선언이다. 일견 스스로 모순을 드러내는 것 같다. 그러나 이 연작은 단순한 상품

작품 이미지 사용 시 아래 저작권 표시 부탁 드립니다.
All Images: Courtesy the artist and ChertLüdde, Berlin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는 맥락과 역사에 기반한다. 2017년 체르트루데 갤러리에서 검은색 <비에카 데코라치오네>를 처음 전시했다. 앞서 1972년도에 이탈리아 밀라노 스파치오 안나 디 제나로에서 선보인 대형 공간 설치를 떠올리게 하는 작품이다. 두 설치 작품에서 캔버스들은 폭신하고 부드러운 건축을 표방하며 벽면을 뒤덮는다. 공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다.

전시에서 선보이는 혼합매체 콜라주는 작가가 70년대에 개최한 두 개의 관객 참여형 전시 《A. to A.》(이탈리아 볼테라 프리오리 광장, 1973)와 《A. to A.》(이탈리아 토리노 예술고등학교, 1971)에 연관한 작업이다. 전자의 연작에 사용한 사진은 1973년 볼테라 성당 앞에서 펼친 퍼포먼스에 대한 기록이다. 마추켈리는 그곳에 두 개의 노란색 원뿔을 포함한 PVC 공기 주입식 조각 몇 점을 방치해 두었다. 아이들이 조각을 쥐고 위에 올라타거나 이리저리 끌고 다닌 결과 많은 조각들이 파손되고 분실되었다. 그 와중에도 밝은 노란색 원뿔 작업들만은 온전히 보존되었고, 당일의 증거로 영상이 하나 남아 있다. 후자에 언급한 연작은 마추켈리가 아이들의 호기심과 즐거움을 위해 몇 개의 공기 주입식 조각을 토리노의 지역 예술고등학교에 남겨 둔 날의 기록이다.

전시의 후반부에서 관객은 여러 개의 커다란, 기하학적 공기 주입식 조각들을 마주하게 된다. 세 개의 원뿔과 폭 6미터짜리 나선형 하나, 그리고 하나의 구다. 지난 2017년도에 체르트루데에서 전시한 작업들이다. 갤러리 내부를 압도적으로 장악하며 당혹감과 즐거움을 동시에 이끌어냈다. 본래 야외 설치를 위해 만든 이 원뿔들은 공간에 대한 통념에 거대하고 재치 있게 난입한다.

프랑코 마추켈리는 이탈리아 밀라노에 거주한다. 밀라노 브레라 순수미술학교 조각기술과목의 교수로 재직했다. 《볼테라 '73》(1973), 《제15회 밀라노 트리엔날레》(1973), 《제37회 베니스 비엔날레》(1976), 《제11회 로마 쿼드레니알》(1986) 등 여러 역사적인 전시에서 작품을 선보였다. 1970년대 초부터 도시의 공공 장소와 옥외 공간에 공기 주입식 조각을 배치하는 환경미술 설치를 제작해왔다. 프랑코 마추켈리의 공기 주입식 조각은 프랑스 카마르그, 이탈리아 밀라노(알파 로메오 팩토리, 브레라 순수미술학교의 뜰, 스포르체스코성 옥외 및 기타 순), 이탈리아 볼테라, 이탈리아 베르가모, 이탈리아 바레세, 이탈리아 레이크 코모, 독일 뮌헨 등 이탈리아를 포함한 해외 다수의 지역에서 전시되었다.

6. 작가 노트

나의 작업

프랑코 마추켈리

작품 활동을 하며, 조각의 비전형적 재료에 대하여 연구해 왔다. 사회 영역, 건축학적 맥락, 나아가 도시 공간을 포괄하는 전시 공간과 내 작업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기 위해서다.

르네상스 시대에 미켈란젤로는 대리석, 청동, 또는 테라코타로 만든 고전 작품의 제작 방식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재료 위에 사유를 중첩하며 조형을 이끌어내는 '쌓기'와 과도하게 사용된 재료를 제거함으로써 사유를 해방시키는 '떨어내기'의 과정이다. 이러한 작품은 재료의 본질이 드러내는 '감각'을 명확히 표출한다. 이 '감각'은 결국 양식이 탄생한 특정 시대의 문화를 투영한 이미지에 지나지 않는다. 예술 작품의 창작 과정에 있어, 재료와 제작 방식이 작품의 첫 단추를 끼우는 요소임은 확실하다. 작품은 독특하면서도 식별 가능한 형태를 지나, 예술을 위해 '따로' 마련된 자리에서 고유의 쓸모 또는 향유성을 획득하며 비로소 완성된다.

다양한 개념이 범람하던 1960년대에 작가로서 발돋움했다. 새로운 기법의 등장에 따라 기존의 예술 창작 과정 중 일부가 허물어진 시기다. 시적이고 감각적인 예술의 과정을 사회 및 공동체 영역으로 확산, 확장하고자 한 시도와 결부한다. 예술은 대중과 새로운 형태로 소통하기 시작했다. 완성된 작품의 재료, 규모, 장소 등이 연구와 실험의 주제가 됐다. 초기 전위예술가들이 시도한 형식적 혁신의 연장선에서 미학적, 사회 공동체적 관심을 보다 포괄적으로 아우르게 된 것이다.

합성 자재의 사용은 나의 초기 작업에서부터 특징적으로 드러난다. 폴리에스터 레진, 발포 폴리우레탄, 열경화성 재료, 공기 주입식 PVC 등을 사용했다. 주로 공업에 이용하거나, 일상용품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재료이기에 우리 시대와 밀접한 연관을 띤다. 그리고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합성 자재의 표현적 가능성에 대한 탐구는 대안적 구조, 기술, 그리고 작품의 과정이자 목적지(어디까지나 내 작업에 한하여)로서의 공간의 활용에 대한 고찰로 이어진다.

1960년대에 <A. to A.> 연작을 시작했다. '유기하는 예술(Art to Abandon)'의 약자인 동시에 문자 그대로 읽으면 '당신을 위해(a toi)'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나는 합성 자재로 만든 대형 공기 주입식 조각들을 공공장소에 놓아두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피기 시작했다. 이 작품은 '폐기물'의

작품 이미지 사용 시 아래 저작권 표시 부탁 드립니다.
All Images: Courtesy the artist and ChertLüdde, Berlin

예시로서, 원하는 사람들에게(a toi · 당신을 위해) 파손, 분실되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유용되도록 노출되었다. 조각들을 '편의적'이거나 '다루기 쉬운' 크기로 줄이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공업용 자재로서의 '매력'적 활용에 연관 지어 작품을 상세히 설명하고자 했다. 예를 들어, 이들을 디자인, 건축 또는 도시의 세간으로 바라보되, 무대 디자인과 분별한 것이다.

상품성을 위해 크기를 축소하지 않는다는 점과, 오브제와 공간 사이의 불가분한 관계인 '한시성' 때문에 작품은 유희적이며 쉽게 향유 가능한(딜레탕트 · dilettante) 특성을 지니게 된다. 작품이 전시되었던 공간들은 현재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장소가 되었지만 1970년대 당시에는 마을과 도시의 광장, 주차장, 공장으로 사용되던 곳이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면, 나는 유희적이라는 표현을 통해 단순 취미로서의 미술이나 작업에 대한 무지함을 뜻하려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딜레탕트 전략은 미술시장의 생산 전문화에 대한 수요를 대체한다. 호라티우스(Quintus Horatius Flaccus)부터 니콜라 푸생(Nicolas Poussin)까지 고전 위인들이 사용한 '기쁨/매력/만족(delectare)'에 대한 개념이 이를 뒷받침한다. 예술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쁨이 도의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같은 매력에서, 공업용 자재를 이용한 '즐거움' 실험은 예술 상품 및 생산 과정의 틈새에 스며들고자 하는 바람이다. 예술의 소비 원리에 대해 질문하며 미학적, 사유적 본질을 재평가하기 위함이다.

도시 공간에서의 전시는 또 다른 '사회적' 국면을 끌어들이는 일이다. 공공장소의 사용 허가를 위해 공기관 및 단체와 관계를 맺는 것처럼, 전시의 실현을 위해 핵심적 요소가 되는 부분이다. 밀라노 브레라 순수미술학교처럼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장소에서의 전시를 허가받는 과정은 더욱 어렵다. 1980년대 체제순응주의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옛 것과 새로운 것이 혼재하는 일, 즉 기념비적인 장소에서 실험적 현대 미술을 선보이는 일이 여전히 많은 반대에 부딪힌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낸다. 작가 양성의 파국을 면하기 위하여, '새로움의 전통'은 '즐거움' 것이 되어야 한다. 마을 및 도시의 다채로운 구조물과 신성시되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침해, 배제, 통제를 발견함으로써 말이다.

1995년 5월

7. 작가 약력

프랑코 마추켈리

1939 이탈리아 밀라노 출생
1963 브레라 순수미술학교 회화과 졸업, 밀라노, 이탈리아
1966 브레라 순수미술학교 조소과 졸업, 밀라노, 이탈리아
이탈리아 밀라노 브레라 순수미술학교 조각기술과목 교수 재직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거주 및 작업

주요 개인전 및 단체전

- 2019 **고공 회전, 당신보다도 격렬한, 학고재, 서울**
시간은 갈망한다 (루카 로 핀토 기획), 쿤스트할레 빈, 빈
플로팅 유토피아 (아투어 반 바엔, 파비올라 비에호프, 알렉산더 둔스트, 아나 후체스, 안첸 로우젠버그
기획), 아트사이언스 뮤지엄, 싱가포르
네거티브 스페이스 (피터 바이벨, 아넷 홀츠하이트, 다리아 밀레 기획), ZKM, 카를스루에, 독일
불확실한 4, 갤러리 위켄드 베이징, 798예술구, 베이징
- 2018 **더 BFG, 카우프만 레페토, 뉴욕**
플로팅 *유토피아* (아투어 반 바엔, 파비올라 비에호프, 알렉산더 둔스트, 아나 후체스, 안첸 로우젠버그
기획), nGbK, 베를린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프랑코 마추켈리 1964-1979 (사비노 마리아 프라스사, 요란다 라티 기획),
20세기 박물관, 밀라노, 이탈리아
삶, 죽음, 기적. 장수의 예술 (칼로 안토넬리, 아나 다네리 기획), 빌라크로체 현대미술관, 제노바,
이탈리아
프뉴마, 체르트루데, 베를린
- 2017 리아프로피아초니, 콘베르소, 밀라노, 이탈리아
- 2015 **단체전, 스파치오 탄디니, 밀라노, 이탈리아**
프뉴마 03 (개인전), 플라스마 - 플라스틱 모던 아트, 밀라노, 이탈리아
프란지트 누첸 & 3° 프레미오 크라뭉, 팔라초 이심바르디, 밀라노, 이탈리아
공기 조절 (개인전), 폴레스키 아트갤러리, 밀라노, 이탈리아
새로운 공기, 키아라몬타네 공장, 아그리젠토, 이탈리아
참여형 환경미술 전시, 신전의 계곡 공원, 아그리젠토, 이탈리아
볼테라 73.15 - 기억과 예측, 페르시오 플라코 극장, 볼테라, 이탈리아
볼테라 73.15 - 기억과 예측 (관객 참여형 전시), 데 프리오리 광장, 볼테라, 이탈리아
애비 컨템포러리 아트, 산 레미지오 수도원, 파로디 리구레, 이탈리아
아쿠아 È, AQUAE 베니스 2015, 엑스포 2015, 밀라노, 이탈리아
35인의 작가, 디제뇨 아르테 컨템포라니아, 만토바, 이탈리아
OLTRE, 부다페스트 이탈리아문화원, 부다페스트
비엔날레 이탈리아-중국, 마스티오 델라 치타델라, 토리노, 이탈리아
날 떠나지 마! (개인전), 프란세스코 메시나 스튜디오 미술관, 밀라노, 이탈리아
- 2014 공기에 대한 헌사 (개인전), 체루티아르테, 제노바, 이탈리아

- 프뉴마 (개인전), 브레라 순수미술학교, 밀라노, 이탈리아
공기 결에, 디제노 아르테 컨템포라니아, 만토바, 이탈리아
작업복, 밀라노 트리엔날레, 밀라노, 이탈리아
단체전, 아트 IX-XI 갤러리, 부다페스트
- 2013 1966-1976 밀라노, 대망의 해, 보코니 아트갤러리, 보코니 대학교, 밀라노, 이탈리아
2013 라코니지 국제 조각 비엔날레, 라코니지, 이탈리아
루오테 디아르티스타, 두칼레 궁전, 루카, 이탈리아
그리고 여정은 즉시 재개된다... 화재 이후의 MA*GA 미술관 소장품, 세론 델라 빌라 레알레, 몬차, 이탈리아
아르모니아 플라스티카 (개인전), 16세기 성, 산타 마르게리타 리구레, 이탈리아
메디테라니아 아르테 컨템포라니아, 플로리오 궁전, 파비냐나, 이탈리아
위압적 상황, 모노폴리 갤러리, 밀라노, 이탈리아
- 2012 씨앗의 아치, 데푸르아트랩 갤러리, 밀라노, 이탈리아
PLAST 2012: 국제성의 명목 하에, 피에라 밀라노, 밀라노, 이탈리아
경이로운 기술을 고대하며 8 (개인전), 가르다 섬, 롬바르디아, 이탈리아
혼합매체 - 20세기 예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20세기 박물관, 밀라노, 이탈리아
대학 내 현대미술의 유용성에 관한 프로젝트, 보코니 아트갤러리, 보코니 대학교, 밀라노, 이탈리아
- 2011 밖으로! 도시 미술과 공간, 1968-1976, 20세기 박물관, 밀라노, 이탈리아
프랑코 마추켈리 & 안토니오 사마르타노, 마카치니 델아르테 컨템포라니아, 트라파니, 이탈리아
필로 아 피오보, 보코니 아트갤러리, 보코니 대학교, 밀라노, 이탈리아
바로코 세베로, ÀCAOS - 갤러리아 시비카 디 아르테 컨템포라니아, 아치카스텔로, 칸타니아, 이탈리아
프뉴마: 대기의 안과 밖, 갤러리아 일밀리오네, 밀라노, 이탈리아
- 2010 장소특정적 설치, MA*GA 미술관, 갈라라테, 이탈리아
풍속계, 밀라노 디오체산 미술관, 밀라노, 이탈리아
시선의 길. 1900년대의 예술 그리고 그 너머, 파도바 문화원, 파도바, 이탈리아
침입, 알라폰조네 미술관, 크레모나, 이탈리아
- 2009 아트-투-아트, 보코니 아트갤러리, 보코니 대학교, 밀라노, 이탈리아
기하학을 투영한 공기와의 실험 (개인전), 갤러리아 모로네, 밀라노, 이탈리아
십자가를 건너. 미켈란젤로부터 현대까지, 성 알베르토 성당, 트라파니, 이탈리아
우름코스파롤, 펠라치 광장, 세스토 산 지오반니, 이탈리아
우리는 여기에, 밀라노 트리엔날레, 밀라노, 이탈리아
우주에 접속하다 - 프랑코 마추켈리 (개인전), 말란드라 미술관, 베스폴라테, 이탈리아
스파치오 치타디니 (개인전), 밀라노, 이탈리아
- 2008 모든 춤을 위하여!, MA*GA 미술관, 갈라라테, 이탈리아
제46회 프렐미오 수차라 "새로운 공감각", 갤러리아 델 수차라, 만토바, 이탈리아
공기와 자석의 조종사 (마추켈리, 보리아니), 만델리아르테, 세레노, 이탈리아
참여형 환경미술 전시, 카시나 몰리노 코스테 비행장, 베스폴라테, 이탈리아
- 2007 예술과 신화: 동시대 조각으로서의 페라리, 랑고니 마키아벨리 공원, 모데나, 이탈리아
트라파니 아트 프로세스 - 현대미술 콜렉티브, 성알베르토 성당, 트라파니, 이탈리아
- 2006 일 파로, 피소네의 탑, 피소네, 이탈리아
치타모르포시, 카시나 그란데, 로자노, 이탈리아
동시대 이탈리아, 벨레레몽 빌딩, 브뤼셀

- 쿤스트할레?, 로카르노, 스위스
- 2005 참여형 환경미술 전시, 타르첸토, 이탈리아
- 2004 BD (개인전), 로자나 올란디, 밀라노, 이탈리아
대기의 예술, 거울 너머의 예술가, 메르칸티 광장, 살레르노, 이탈리아
생명의 징조, MAC 무지오 디아르테 컨템포라니아, 파비아, 이탈리아
관객 참여형 전시, 스포르체스코 성, 밀라노, 이탈리아
- 2003 경이로운 기술 (개인전), 푸이냐고술가르다 성, 브레시아, 이탈리아
예술가의 조형, 국립과학기술박물관, 밀라노, 이탈리아
폴리메라, 토레 콜롬베라재단, 고를라 마조레, 이탈리아
공공장소에서의 예술, 베르톨트 브레히트 문화원, 밀라노, 이탈리아
- 2002 개인전, 베르톨트 브레히트 문화원, 밀라노, 이탈리아
가치와 기억, 브롤레토 기념 단지, 노바라, 이탈리아
- 2001 개인전, 파라나 현대미술관, 쿠리치바, 브라질
관객 참여형 전시, 오레피치, 밀라노, 이탈리아
벨레니, 빌라 레알레, 몬차, 이탈리아
상상의 미로 - 브레라 순수미술학교의 작가들, 필리포 팔리치 주립미술학교, 바스토, 이탈리아
식용 예술, 만자레 아르떼, 퀸토 코르티레, 밀라노, 이탈리아
사크로 이 프로파노 넬라아르떼, 브로레토 디 노바라, 노바라, 이탈리아
- 1999 대구-밀라노 미술교류전,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 1998 제13회 로마 콰드리엔날레 - 다중매체 문명에서의 시각예술 공간, 로마
브레라 2000. 육체의 정신성에 대한 새 지평 (순회전), 밀라노, 이탈리아
- 1997 참여형 환경미술 전시, 보르고루폴리, 피렌체, 이탈리아
그라도 제로, 밀라노, 이탈리아
- 1996 무거움과 가벼움 사이, 칸투, 이탈리아
프네우인바이로르만, 아르떼+샤인사, 브레라 순수미술학교, 밀라노, 이탈리아
브레라: 어제와 오늘, 빌라 카를로타, 코모, 이탈리아
- 1995 제노바타친퀘, 국제 포에트리 페스티벌, 밀라노, 이탈리아
90년대 밀라노의 예술, 갤러리아 크레디토 발테니네제, 밀라노, 이탈리아
- 1994 XXXII 국제 밀라노 비엔날레, 순수미술단체 (상설전), 밀라노, 이탈리아
- 1993 브레라 - 보리아니와 마추켈리, 브레라 순수미술학교 출신 작가들, 브레라 순수미술학교, 밀라노, 이탈리아
- 1992 아트 펜스. 예술은 예술이 구원한다, 로톤다 디 비아 베사나, 밀라노, 이탈리아
- 1987 세상의 기반, 그 너머, 손치노, 이탈리아
밀라노 지하철을 위한 네 개의 프로젝트, 밀라노, 이탈리아
크로모스페라 (보리아니, 마추켈리), 갤러리아 체노비오, 밀라노, 이탈리아
밀라노 포에시아, 로톤다 델라 베사나, 밀라노, 이탈리아
- 1986 제11회 로마 콰드리엔날레, 로마 컨퍼런스 센터, 로마
솔디 드오토레 (바이, 보리아니, 카셀라, 카발리에레, 포모도로), 달스, 볼로냐, 이탈리아
갤러리아 IKB 블루 프로폰도, 갤러리아 체노비오-비주알리타, 밀라노, 이탈리아
르오베사, 밀라노 트리엔날레, 카시나 파빌리온, 밀라노, 이탈리아
- 1985 참여형 환경미술 전시, 브레라 순수미술학교, 밀라노, 이탈리아

- 개념과 재현 사이 (알타미라, 데 필리피, 라피에트라, 루치, 나가자와, 스타츨리), 팔라초 리치, 몬테폴치아노, 이탈리아
- 1984 피라미드, 팔라초 델 세나토, 밀라노, 이탈리아
- 1983 참여형 환경미술 전시, 브레라 순수미술학교, 밀라노, 이탈리아
- 1978 리아프로피아초니, 빌라 레알레, 몬차, 이탈리아
- 1977 벽보를 붙이지 마시오, 도시의 신호, 센트로 포르멘티니, 밀라노, 이탈리아
- 1976 리아프로피아초니, 카바 마나라, 파비아, 이탈리아
리아프로피아초니, 산 카르포호로 교회, 밀라노, 이탈리아
제37회 베니스 비엔날레, 베니스
예술과 사회 (마우리, 마추켈리), 브레라 국제센터, 밀라노, 이탈리아
로베르토 프란체스키를 위한 기념비 (카발리에레, 마리, 스타츨리, 보날루미, 보리아니, 카리노, 카스테라니, 소마이니), 밀라노, 이탈리아
- 1975 "루니따" 축제, 오늘의 조각가 (보날루미, 보리아니, 카발리에레, 콜롬보, 메르츠, 페노네, 스타츨리, 윤치니, 조리오), 밀라노, 이탈리아
관객 참여형 전시, 산탄젤로 로디지아노, 로디, 이탈리아
관객 참여형 전시, 메데 로멜리나, 이탈리아
관객 참여형 전시, 폰티아, 카라라, 이탈리아
- 1973 볼테라 '73, 관객 참여형 전시, 프리오리 광장, 볼테라, 이탈리아
XV 밀라노 트리엔날레, 밀라노, 이탈리아
프랑코 마추켈리 (개인전), 갤러리아 일제소, 로디, 이탈리아
- 1972 억압의 몰락 (개인전), 일디아그라마, 밀라노, 이탈리아
- 1971 A. to A., 관객 참여형 전시, 알파 로메오 팩토리, 밀라노, 이탈리아
오브젝트, 프로젝트, 플레인, 이탈리아의 개념미술 (아니에티, 보에티, 이카로, 지나 파네, 파르미치아니, 프리니, 온타니, 가스티니), 앤마리 베르나 갤러리, 취리히, 스위스
D, 그래픽 (바이, 벤, 보이스, 보날루미), 갤러리아 산 페델레, 밀라노, 이탈리아
A. to A., 관객 참여형 전시, 토리노 예술고등학교, 토리노, 이탈리아
A. to A., 관객 참여형 전시, 산타 마르게리타 리구레, 이탈리아
쿤스트 존, 뮌헨, 독일
- 1970 A. to A., 관객 참여형 전시, 산 페델레 광장, 밀라노, 이탈리아
A. to A. - 이코사에드로, 관객 참여형 전시, 생트 마리 드 라 메르, 프랑스
A. to A., 관객 참여형 전시, 코모호, 코모, 이탈리아
A. to A., 관객 참여형 전시, 스튜디오 970, 바레세, 이탈리아
프로스펙티베 4, 로마; 페레라, 이탈리아; 레지오 에밀리아, 이탈리아
LP 220 (개인전), 토리노, 이탈리아
신호에 대한 찬반 (아니에티, 알비아니, 보리아니, 카르미, 콜롬보, 쿠르즈-디에즈, 다다마이노, 드 베키, 레 파르크, 모를레, 나누치, 소토, 토른키스트), 토리노, 이탈리아
산 페델레 논평 1970/1971 (케티 라 로카, 마리니엘로, 파르미치아니), 밀라노, 이탈리아
- 1969 어반도노, 관객 참여형 전시, 바레세, 이탈리아
어반도노, 관객 참여형 전시, 베르가모, 이탈리아
어반도노, 관객 참여형 전시, 오체로, 이탈리아
억압의 몰락, 갤러리아 디아그라마, 밀라노, 이탈리아
어반도노, 갤러리아 카날레, 베니스

작품 이미지 사용 시 아래 저작권 표시 부탁드립니다.
All Images: Courtesy the artist and ChertLüdde, Berlin

- 2000년의 미학 보고서 (알비아니, 아폴로니오, 아리코, 체로리, 바루켈로, 보날루미, 다다마이노, 마우리, 나누치, 토른키스트), 바레세, 이탈리아
 산 페델레 축제의 젊은 작가들, 갤러리아 산 페델레, 밀라노, 이탈리아
 구식이 된 신가공재: 가공된 정교한 잘못 다루어지고 분석된 변모하여 재창조된 (알비아니, 알트만, 보리아니, 체로리, 시저, 크리스토, 콜롬보, 델 페초, 드 베키, 지라르디, 리히트슈타인, 만조니, 파스칼리, 슈오파, 토른키스트, 바자를리, 워홀), 쿠나르도, 이탈리아
 우연, 마사프라, 타란토, 이탈리아
 두 개의 현실, 레리치 성, 레리치, 이탈리아
- 1968 어반도노, 관객 참여형 전시, 갈라라테, 이탈리아
 어반도노, 관객 참여형 전시, 생트 마리 드 라 메르, 프랑스
- 1967 어반도노, 관객 참여형 전시, 갤러리아 산 페델레, 밀라노, 이탈리아
 어반도노, 관객 참여형 전시, 몬테소리학교, 밀라노, 이탈리아
- 1966 새로운 경향 (마르티네기, 데니스-마지, 지에브 반 제이앤, 제프리 쇼), 갤러리아 산 페델레, 밀라노, 이탈리아
 국제전시 - 프레미오 란카티, 스폴레토, 이탈리아
- 1965 다섯 개의 유럽 아카데미, 온무텐 엘카, 마두로담, 네덜란드
 안제라 65, 카스텔라, 안제라, 이탈리아
 아트 1965 (더들리, 데니스-마지, 지에브 반 제이앤, 웬더, 야마가타), 만토바, 이탈리아
 프레미오 치타 디 밀라노, 모던 아트 갤러리, 밀라노, 이탈리아
- 1964 어반도노, 관객 참여형 전시, 생트 마리 드 라 메르, 프랑스

소장

밀라노 피에라 재단, 밀라노, 이탈리아